

## 규모와 특화로 전세계 출판문화인의 주목을 받는 도서전

2003 서울국제도서전을 계기로 국제도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서울국제도서전을 50~70개국 이 참가하는 아시아 중심국제도서전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도서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볼로냐세계도서전은 가장 특화된 도서전으로 꼽힌다. 2003 서울국제도서전을 계기로 이들 두 도서전의 특징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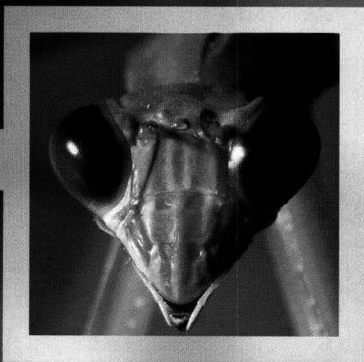
### ✦ 폐허에서 피어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15세기 초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 직후부터 인쇄업자와 작가들의 참여에 의해 시작된 도서전이다. 1564년부터 '부흐메세'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도서전은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중단되었다가 1949년 독일출판업자와 서적업자들이 모여 재개하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유지해 왔다. '부흐메세' 덕분에 프랑크푸르트는 슈투트가르트나 함부르크와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고 특유의 '자유정신'이 도서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세계 최대의 국제도서전에 걸맞는 주요 행사도 눈길을 끈다. 2년마다 한 번씩 문화제를 개최하고 논란이 되는 출판테마를 정해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1988년부터는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서 그 나라나 지역의 자체 운영 하에 고유 문학을 소개하는 코너도 신설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도서문화를

알리고, 최신 출판경향을 제시하면서 독일의 '문화진흥'을 위한 최대의 호기로 활용되고 있다.

### ✦ 아동서적의 걸판진 축제 <볼로냐아동도서전>

아동과 청소년도서의 판권이 프랑크푸르트 메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행사다. 한 해 아동도서시장의 유행을 판가름할 만큼 아동출판에 큰 영향력을 주는 도서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볼로냐아동도서전은 도서전시회 이외에 일러스트레이션 전시관을 별도 운영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일러스트 전시회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데뷔무대가 되기도 하고, 출판관련자들에게 양질의 일러스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뉴 미디어 제품전시를 통해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전시자와 관람자들은 대형 서버 장착으로 설치된 뉴 미디어 아케이드에서 최신의 미디어 상품을 관람할 수 있다.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분야의 출판도 소개된다. 올해 볼로냐아동도서전은 미국 교육출판사협회와 공동으로 국제적인 교육출판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글로벌 러닝 이니셔티브(Global Learning Initiative, GLI)를 준비하기도 했다. 아동출판 시장을 점검하고 아동출판의 미래를 제시하는 볼로냐아동도서전은 출판관계자는 물론이고 그림책 일러스트, 학습용 교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 정리 김청연 기자



출판 편집을 위해 사진이 필요하시다고요.  
발품은 이제 그만, 앉은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다운 받으십시오.  
포인스는 고해상 사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국내 최대의 생태, 전통문화 사진 라이브러리!
- 저렴한 대여료, 장기 계약에 의한 후불제 가능.

## 사진,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다운받자!